

이색 푸드 드롭(Food Drop) 이벤트

뉴욕지사

볼 드롭(Ball Drop)을 모티브로 한 '푸드 드롭(Food Drop)'

- 매년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함께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200만 명이 모여든다. 여러 이벤트 중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1907년부터 시작된 '볼 드롭(Ball Drop)'이다. 뉴욕 타임스퀘어 빌딩 꼭대기에 달려있는, 무려 5톤에 달하는 원형 볼이 1월 1일 0시 0초에 빌딩 위로 떨어져 볼 드롭이라고 불린다.



- 이와 비슷한 이벤트는 미국 각 주에서 열리는데, 재밌는 점은 각 주의 특산물을 형상화한 '푸드 드롭(Food Drop)'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푸드 드롭 이벤트

① 펜실베이니아 주의 '버섯'

펜실베이니아 주는 미국 버섯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1의 버섯 생산지로서 '버섯의 수도'라 불린다.

버섯 생산이 최초로 시작되었던 케넛광장(Kennett Square)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0.2톤의 버섯을 25m 상공에 매달아 놓고 함께 새해를 기다린다.



② 조지아 주의 '복숭아'

조지아 주의 또 다른 명칭은 '복숭아 주(The Peach State)'로, 복숭아는 이곳의 공식 과일이자 고속도로 표지판, 차량번호판, 동전에서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상징물과도 같다. 조지아 주에서는 18세기부터 복숭아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 복숭아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생산

되고 있다. 복숭아 드롭은 1989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30년간 조지아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큰 이벤트로, 매년 10만 명이 모이는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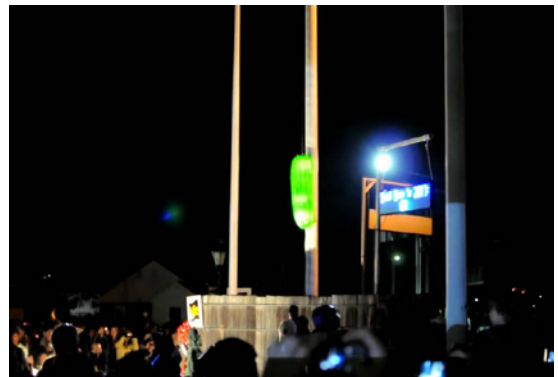
③ 아이다호 주의 '감자'

미국 전체에 유통되는 감자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는 2012년부터 감자 드롭 이벤트를 시작했다. 다른 주와는 달리 레슬링, 스노우보딩 대회,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VIP·패밀리 입장 부스 운영, 기념품 판매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키워나가고 있다.



④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피클'

여타의푸드 드롭과는 달리 피클 드롭은 피클 판매업체(Mt. Olive)에서 주최하여 1999년부터 시작됐다. 피클 드롭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을 위해 무료로 핫초코, 쿠키 그리고 피클을 나눠주며, 시간이 되면 피클이 45피트 깃발을 타고 피클 통조림 탱크로 들어가는 장관을 구경할 수 있다. 여러 프로그램 중 방문객들로부터 통조림 기부를 받아 그 지역의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전통이다.



한식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

- 미국의 푸드 드롭 행사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에게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미국 내 한인 타운 등지에서도 김치, 배, 비빔밥 등을 활용한 유사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한국 및 한식의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